

사드보복에 통상임금 폭탄... 車업계 '실상가상'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3.19 (-9.10)
-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1)
- ↑ 코스닥 657.83 (+2.83)
- ↑ 환율 (USD) 1127.80원 (+3.60)

기아차 여파 '도미노식 타격 우려'

중국 매출 1년새 40% 급감... 완성차 5곳 임단협 갈등

부품업체도 통상임금 리스크... "산업경쟁력 약화" 호소

안팎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결국 통상임금이라는 '폭탄'까지 받아들여야 했다. 비록 기아자동차에 한해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지만, 업계는 다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쳐 도미노식 타격을 미칠 수 있다며 집중한 분위기다.

업계가 일제히 잃는 소리를 하는 것은 글로벌 침체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한국 자동차의 내수·수출·생산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수 수출량(132만1390대)은 2009년(93

만8837대) 이후 8년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중국 시장 판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의 여파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도 4% 줄어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고, 공장 가동률은 2014년 96.5%에서 올해 상반기 93.2%로 떨어졌다.

기아차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차의 위상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5년보다 7.2% 줄어 인도 다음인 세계 6위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7위인 멕시코에도 추월당할 처지다. 5년 전만 해도 멕시코에 100만대 가깝게 앞섰던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올

상반기 차이가 10만대선으로 좁혀지면서 턱밑까지 추격당했다. 10년 넘게 독일·일본에 이어 3위를 지켰던 수출도 올해 들어 멕시코에 자리를 내주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사 갈등이 아직 진행 중인 점도 업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이다.

완성차 5개사 중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은 아직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매듭짓지 못했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차는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 시까지 교섭을 중단하기로 해 11월에야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경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계기로 교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나 노사간 이견이 커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자동차 업계는 위기 상황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목해왔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원으로 토요타(9104만원), 폭스바겐(804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5개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12.2%로 폭스바겐(9.5%), 토요타(2012년 7.8%)를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소송 지급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다른 소송에까지 이어지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이날 선고가 난 기아차를 비롯해 르노삼성을 제외한 완성차 4개사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있다. 부품업체의 경우도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통상임금 리스크가 다수 남아 있는 상태다.

배상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채소값 안정 속 배추는 급등

폭우에 75% 올라 10kg 1만4808원... 양파·마늘 진정세

올여름 폭우 피해로 배추 출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 달 새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해 사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8월 잦은 비로 배추 등 채소류 작황이 부진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고랭지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10kg당 8485원이었지만, 이달 하순 기준 1만4808원으로 74.5% 급등하는 등 노지채소류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양파, 마늘 등 저장출하 중인 채소류의 경우 이달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는 추석 성수기에 공급되는 사과, 배는 공급량이 충분해 평년수준의 가격이 예상된다. 포도는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명절수요와 대체수요 등으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계란, 닭고기 등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31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시장논리를 내세우며 채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이어의 해외매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국가 경제 및 안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망라된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광주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국가 경제 및 안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 냉장고 절전·소음·진동 품질 독일도 인정

인버터컴프레서 21년 수명 인증

삼성전자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독일 규격 인증기관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로부터 냉장고 '인버터 컴프레서' 품질시험에서 21년 수명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인버터 컴프레서는 냉장고 핵심부품으로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냉장고의 전력 사용량, 소음, 진동 수준을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5월 냉장고 컴프레서 생산 40여년 만에 누적생산량 2억대를 돌파하며, '3초당 컴프레서 1대 생산'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 생산력을 입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글로벌 냉장고 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냉장고 핵심부품인 '인버터 컴프레서'를 옆에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전남 광공업생산 증가

전자부품 등 7월 전년비 5.1% 늘어... 소비는 감소

지난 7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5.1%, 전월대비 15.2% 각각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자동차, 섬유제품, 전기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자동차, 섬유제품, 의료정밀광학 등이 감소한 반면 전자부

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5.9%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자부품·컴퓨터, 금속가공, 담배 등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7.9% 증가했다.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5.2% 감소했다.

7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종이제품, 금속가공 등이 감소했으나 섬유제품, 기타 운송장비, 1차금속 등

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1.9%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종이제품, 기계장비, 1차금속이 감소한 반면 섬유제품,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섬유제품 등이 감소하고 화학제품, 1차금속, 원료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로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인도네시아 간 '한전 대학생봉사단'

태양광 가로등·학교 발전기 설치 등 큰 호응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롬복(Lombok) 지역에 KEPCO 대학생 해외봉사단 30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3년째를 맞고 있는 한전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한전 대학생 봉사단원 30명은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툼바 마을 진입로에 50여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했다. 또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전기의 원리를 배우는 전기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빛과 에너지를 테마로 한 한전만의 특색을 살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한전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올해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에 앞서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8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몽골에서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최재호기자 lion@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명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장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특전: 지난 34년간 특목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자격 취득 10명, 국가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으로 책임지도하여 수료후 모집계 정승후 평생지도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마감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매주(수요일) 야간: 7시~9시
	매주(목요일) 야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전, 삼거리 코너(뒷집 직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 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임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 2017년 8월 2일(수) ~ 2017년 9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 9월 5일(화) 야간 7시

- 모집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9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강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ite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